

큰물당 조상님은  
 할루산 셋어깨  
 무유알에서 솟아나니  
 그 할으방이  
 삼방굴사로 느렸수다.  
 이 때에 산툃이  
 삼백머리가  
 삼방구절에 노리까  
 삼방골새 구절머리로  
 산툃을 다올리는 것이  
 골은 아흔아홉골이라,  
 동골로 느리민  
 셋골로 오고  
 번넛골로 올르민  
 앞골로 느리고, 흐는 것이  
 아흔아홉골을  
 다 돌았수다.  
 남신 신은냥  
 삼방굴로 느려서  
 큰물당물 느려서  
 그 산툃 삼백머릴  
 잡아서  
 설 빼여먹고  
 여지물동산 도올라  
 좌우방을 슬퍼보니,  
 큰물머리에  
 좌정홀만 하여  
 거기 집을 지어  
 살았수다.  
 그 때에 농스도 아녀고  
 큰물꿀챙이가 있었는디,  
 거길 전부 논을 맨들아서  
 농스를 지니  
 천하 거부로 살아,  
 이 때에

흐를날은  
소서중이 권제 삼문 받으레  
느르스니,  
“어떤 일로 권제 삼문 받으레  
느렸느냐?”  
“헌당이 떨어지고  
헌절이 떨어져서  
권젤 삼문 받아당  
헌절수리 헌당수리  
흐젠 느렸수다.”  
“그건 헌당수리  
헌절수리 흐민 뭘 흐느냐?”  
“귀흠 천흠을 아옵소서.”  
“귀흠 천흠을  
어찌하여 알겠느냐?”  
“되 아흠, 말 아흠, 흠 아흠,  
푸는체 아흠을  
매일 당물에서 시쳐서  
일외간을  
식전 아침이  
문전으로 올랏??지 옆어서  
글로  
바라가곡 바라오곡 흐시오,  
그 때는 귀흠 천흠을  
알 쥼네다.”  
아닐서라 그 할으방이  
되 아흠, 말 아흠, 흠 아흠,  
푸는체 아흠을  
매일 식전 아침이  
일외간을 시쳐서  
문전으로 올랏??지 옆어서  
글로  
바라가곡 바라오곡 흐여가니,  
이 때에 대오방 수천리에서  
수이가 지여서  
물이 북거,  
논에 나룩이  
전부 극썰어가비여,

하니,  
승년이 지여,  
“이거 조손들도  
귀흙 천흙을 알겠다.” 하여,  
할으방은 그 때에  
이 묵실에  
짐칩 상단골 하고,  
조칩 상단골 하고,  
이칩 상단골에  
논덜을  
앞괘판이, 중괘판이  
하괘판이를,  
강답, 수답 흘 게 웃이  
다 조손가지에  
분짓시겨 줘비니,  
그 땃 법으로  
큰물당 조상님께  
훈 해에 훈 번씩  
나록 훈뭇씩  
이 본당 맨 사름은  
다 갖다 줘네다.

제일 1월 1일, 과세제  
3월 15일, 대제일  
8월 15일, 시만국제

<안덕면 사계리 여무 48세 고인옥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33-534.